

# 한국의 보물, 해인<12>



대부도 쌍계사 용왕탱화

우가 대부분이다. 이때에는 아주 짧은 기간에 해인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 따른다. 흔히 해인이라는 도장을 찍어서 금세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가①과 가⑥에서는 해인이라는 성스러운 물건이 보관된 장소를 짐승들이 함부로 넘어 다니지 못했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날짐승이 그 위를 지나가면 떨어져 죽기도 했다고 이야기된다.

해인을 가지면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가⑤에서는 해인을 이용하여 변신술을 부릴 수 있다고도 말한다.

그리고 가⑩에서 현대의 원자폭탄과 같은 엄청난 위력을 지닌 무기도 해인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해, 해인이 현대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표현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가⑥에도 나타나는데, 해인이 외국 군대의 침입이나 인류 멸망을 초래할지도 모를 원자폭탄에 대한 대비책으로 믿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가②에서는 해인을 사용하여 각종 물건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의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해, 홍길동이 해인을 가지고 독일로 건너가서 발전시켜 주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독일제품이 우수하다는 사실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한다.

나이가 가⑩에서는 해인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장차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고, 가⑩에서는 해인은 우리나라의 보물이므로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되돌아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는 많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 잘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여기서 해인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가의 보물로 믿어진다.

한편 가⑦에서는 해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다. 어떤 물건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나오는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여 결국 흥청망청 놀기만 할 것을 염려하여 경계한 것이다.\*

김택 박사 / 신종교 연구가

## 건강과 수행

### 실생활 속에서의 반대생활

#### 영생의 확신 속에서 반대생활과 희생적인 생활을 실천해야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란다. 물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람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한두 군데 아프기 마련이다. 그래서 젊은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간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반대 생활과 더불어 영생의 가치관을 자신의 마음속에 다져 영생의 확신을 확고하게 심어놓는 일 또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 세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마귀 세상이다.

조금만 방심해도 육천 년간 흘러온 죽음의 사상들이 내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말 것이며 만약 영생의 가치관이 제대로 서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소용돌이에 영생의 가치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확고한 영생의 신념을 구축해야 한다. 그 구축된 영생의



신념 바탕 위에 반대 생활을 실천하고 마지막으로 희생적인 생활로 일관해야 한다.

일반적인 희생적인 생활은 모든 종교인의 실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의 실천 덕목이라고 해야 옳겠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희생적인 생활은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러한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의 하나님을 위해 '나라는 주체의식이 희생'을 당하는 그러한 개념을 뜻한다.

'나라는 주체의식은 우주에서 최고의 악한 마귀 영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 이긴자 구세주 한 분을 출현시키는 데 육천 년이 걸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겠나. 사실 희생적인 생활은 반대 생활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은 '나라는 주체의식을 죽이는 것으로 귀결된다' 말이다.

영생의 확신을 나의 마음속에 구축하고 반대생활과 희생적인 생활로 일관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긴자 구세주께서 당신의 가치들에게 진정 바라는 것이며 그리하면 육신의 건강은 자연스레 뒤따라올 것이 분명하다.\*

이승우 기자

왜 그럴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승리신문 기 존 독자분들께서는 아실 것으로 생각한다. 승리자 구세주께서 1980년 10월 15일에 우주 권세를 쥐고 있던 대장 마귀를 없애버리셨지만, 쫓겨간 마귀들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아직까지는 이 세상이 음양의 법칙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음양의 법칙은 소멸의 법칙이므로 이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연히 우리의 몸은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람의 주체의식인 '나라는 존재'마저 마귀이다 보니 반대생활을 100%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몸속의 피는 계속해서 썩을 수밖에 없으며 흔탁한 피로써 조성된 우리의 몸은 서서히 고장 날 수밖에 없다.

구세주가 아닌 이상 100% 반대생활을 할 수는 없겠지만 물고기가 물살을 거스르듯 최선을 다해 실생활에서 반대 생활을 실천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때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것만이 구세주께서 선포하신 자유유법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최소한의 의무가 아닐까.

실생활에서의 반대생활이란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 참고 일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 충돌 시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 화가 날 때 오히려 웃음으로 이겨내는 것,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기, 음란한 마음이 나올

#### (10) 해인의 위력

해인이 어떤 힘을 지닌 보물이라고 믿어졌으며, 실제로 해인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고 전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

가① 까치나 날짐승이 해인을 숨긴 해인사의 지붕 위를 날아다니다가 떨어져죽었다고 전한다. 화자(話者)가 말하는 대로 되는 보물인 해인만 있으면 원자탄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가② 이미 죽은 사람의 가슴에 해인을 올려놓았다니 금방 살아났다.

가③ 해인을 가지고 하루아침에 해인사를 지었다. 글자를 써서 해인을 찍으면 건물이 들어섰다.

가④ 해인에 대고 "쌀 나와라, 돈 나와라."라고 말하니, 쌀과 돈이 나와서 부자가 되었다.

가⑤ 당시 40여 세였던 정만영이 해인으로 갱신변신(更身變身)해서 살았다.

가⑥ 해인을 이용하여 돈을 몽땅으로 가지고 있으니 역적이 되었다. 또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 임금에게 해인을 바치니, 임금이 귀찮고 불안해서 필요가 없다고 정승에게 되돌려주었다. 정승이 해인을 사용하여 해인사를 증장한 다음 해인을 감추었다.

해인을 감춘 뒤로 짐승들이 해인사를 넘어 다니지 못했다. 또 군인이 대포를 쏘지 못했다. 왜냐하면 대포에 물이 차기 때문이다. 해인을 사용하면 원자탄도 물을 먹어버린다(소용없게 된다).

가⑦ 해인을 사용하면 끊임없이 물품이 나오므로 "자식에게 전하면 자식이 망할 것이고, 나라에 바치면 나라가 망할 몸살 물건"이라고 설명된다. 양반이 해인을 가지고 직접 해인사를 지었다.

가⑧ 해인을 사용하면 쌀과 옷과 돈이 말하는 대로 나왔다. 중이 해인을 빌려가 해인사를 지었다.

가⑨ 해인을 찍으면서 어떤 집이 나오라고 하면 그대로 되었다.

가⑩ 우리나라에 장차 서인(倭人, 상서로운 사람?)이 나타나 해인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가⑪ 작공 후 100일 안에 건립하겠다는 약속기한을 맞출 수 없었던 해인사를 해인을 사용하여 기한 내에 무사히 지었다. 해인이 지금은 용국(龍國)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보물이기 때문에 언젠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7개국의 조공을 받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가⑫ 해인으로 해인사를 지었다. 홍길동이 해인으로 독일을 발전시켜 주었기 때문에, 요즘도 물건은 독일제가 좋다고 말한다.

가⑬ 해인을 사용하여 하루저녁에 해인사를 지었다.

나① 붉은 연적을 사용해 병(兵)이란 글자를 써서 들었더니, 난데없이 군사 역 십만 명이 나오고, 식(食)자를 쓰니 밥이 나오고, 주(酒)자를 쓰니 술이 나오더라.

나② 계속 사용해도 마르지 않는 비루를 받아왔다.

나③ 용왕이 쓰던 비루를 받아왔다. 비루의 특별한 쓰임새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해인이라는 이름과 해인사라는 사찰의 유사성에 연유해서인지, 해인을 사용하여 해인사를 창건했다는 경

## 불교 화엄종에서 언급되는 해인

의상의 스승인 지엄(智嚴, 602-668)은, 초기 저작인 『화엄경수현기(華嚴經搜玄記)』에서는 해인산매에 관해서 주목하지 않고 단지 보살이 작용하기 위해 의거하는 산매로서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다. 법성(法性)이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한 만년의 저술 『공목장(功目章)』에서 비로소 해인산매를 중요시하여 화엄일승의 모든 교설이 해인정(海印定·해인산매)에서 비롯한다고 설명한다. 지엄의 해인산매에 대한 이해는 의상에게도 수용되어 의상은 석가여래의 교설에 포함되는 삼승의 세계, 즉 깨달은 자의 세계, 중생들의 세계, 기반으로서의 환경세계가 모두 해인산매로부터 풍성하게 출현한다고 하였다.

화엄종의 제2조 지엄(智嚴)을 계승한 제3조 법장(法藏, 643-712)은 『화엄경탐현기(華嚴經探玄記)』에서 "일체의 모든 것을 가림 없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해인산매의 권

능에 의해서이다(一切示現無有餘海印三昧勢力)"라는 경문을 인용하고 해인병현문(海印炳現門)과 관련하여 기술하기를, 해인산매에 의해서 모든 교법이 설해지고, 보현 등의 대보살이 이 산매를 얻어 부처님과 같은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해동화엄초조 의상(義湘, 625-702) 대사가 중국에서 『화엄경』을 연구하고 그 경의 뜻을 추려서 지은 시(詩) 즉 법성계에서는 "능히 어짐을 행하시는 분(부처)의 해인산매에서 마음대로 불가사의한 것을 풍성히 쏟아낸다(能仁海印三昧中 繁出如意不思議)"라는 계승이 있다. 이후 의상의 계통에서는 산매에 의거해서만이 중생에게 진리의 비를 뜻대로 내리게 할 수 있고, 중생은 각자의 역량대로 이 진리를 취할 수 있다는 사유가 전통적으로 자리하였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해인(海印) 참조』

산매의 마음 밭에 비로자나불(이긴자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 해인 즉 매일 내리는 진리의 비(甘露法雨로 인치니 곧 성불한 부처님이 사는 화엄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 새로운 보혜사 성령의 새말씀 【1】

성경은 인간과 만물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있다. 따라서 선악과의 성경을 바로 알 수 있을 수 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듯이, 생명과일의 정체를 알고 먹으면, 인간은 누구나 탈검중생하여 태초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죽게 된 근본 원인이 비롯되었음을 알고, 정체를 바로 알아야 고, 생로병사의 근원

### 1. 예수는 선악과의 정체를 물렸다

선악과는 사과나 복숭아 같은 육적인 과일이 아니라 영적인 과일이다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에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다가 결국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했다. 그래서 인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조창생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를 믿는 교회에서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고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가 선악과의 정체를 모르고, 원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수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며, 그가 사랑했던 마르다

와 마리아에게 자기를 믿도록 강요했다. 또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여 예수 자신을 믿게 하였으나, 예수 이후 2천년이 지나도록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는 아무도 없었고, 그 제자들도 모두 다 죽었다.

물론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 해야 이해가 될 것이나, 이것은 마지막 때 오실 새로운 보혜사 성령 되신 이긴자 구세주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지고 나오실, 하늘나라에 감추었던 생명나무 과일인 이슬성신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예수나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서 서로가 알버리고 순교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선악과가 영적인 과일임에도 그 뜻을 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사과나 복숭아라고 하고 있다.

선악과는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영을 사로잡은 마귀요 사망의 신이다

성경 창3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핵심의 말씀은 과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해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가로막은 자가 하나님이냐 하는 것과 선악과를 먹기 전의 아담과 해와의 몸과 마음의 근본이 되는 토지를 갈게 했다는 것이다.

성령의 신이요 하나님이 만든 자식 같은 아담과 해와라면 결코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질렀다해서 자선만대로 죽게 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과 땀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며,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의 역사와 선악과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인류사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가 근본된 토지를 갈았다는 것 역시 엄청난 하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여기서도 역시 토지는 영적인 말씀으로 아담과 해와의 몸과 마음을 비유한 말이다. 즉,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서 보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 살았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으며, 그들의 근본된 체질이 바뀌어 하나님의 형상은 간데없고, 인간 남녀의 빛은 육체와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죄인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마귀가 그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목을 지키게 하였으니, 생명나무 실과는 영원히 하늘나라에 감추인 열매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선악과가 되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나올 때 비로소 생명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보아 알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주체 의식이 원죄요, 선악과요, 마귀요, 사망의 신이다

그렇다면 원죄가 되는 선악과의 정체는 무엇인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짜의 말씀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삯은 사망이요, 죄는 마귀 종이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곧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인데, 욕심은 나라의 주체의 식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죄가 바로 인간 남녀 저마다 자기를 주장하는 나라는 주체의식이 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악이라 하여 나를 항상 버리고 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와 사망의 근원이 되는 원죄가 되므로 태초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먹고 죽게 되었다는 선악과가 바로 인간 속에 있는 나라는 주체의식이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곧 원죄요, 선악과이며, 마귀요, 사망의 신이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마귀 영이 아담과 해와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는 의미다.\* (다음호에 계속)

-행 徐輔睦